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2. 1. 1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 그린수소 실증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적 진행을 통해
안정적이고, 체계적인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
가고 있음

(1.17일자 서울경제 「국내 첫 생산 그린수소 66% 허공에」, 「제주,
그린에너지 설비 과잉 ‘몸살’.. 전력도 남아돈다」 보도에 대한 설명

1. 보도내용

- ☐ 국내에서 첫 생산한 그린수소 818kg의 66%인 542kg이 활용처가 없어
대기 중에 방출됨
- ☐ 그린수소 생산 역시 재생에너지 설비 과잉을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
진행됐지만, 정작 활용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, 반쪽 테스트만 진행한 셈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(대기 중 수소 방출) 제주도 상명풍력단지에서 진행된 동 과제는 풍력
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500kW급 하이브리드 수소변환 및
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이 기본 목적으로 활용처가 없어 생산된 수소를
방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 - 해당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(지필로스) 자료에 따르면, 수전해 설비
운전으로 생산된 총 수소량은 706kg임
 - 생산된 수소는 당초 기획대로 연료전지발전에 276kg, ▲수전해
최적화 시험, ▲운전 시퀀스 시험, ▲수소순도 시험 등에 수소 254kg를
사용하였으며, 나머지 수소도 현재 튜브트레일러에 보관 중으로
생산된 수소의 66%를 허공에 방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
- (그린수소 생산·활용방안) 동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수소 생산의 안정성, 신뢰성 및 국내 제품의 기술력 향상 등에 방점을 두고 진행한 과제였음
- 동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, 현재 산업부는 과제주관 및 참여 기관, 제주도청 등과 협의하여 해당 설비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으로 연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
- 그 외에도 2MW(동해), 3MW(제주)급 등 그린수소 생산 규모 확대(scale-up) 관련 실증 연구과제 사업들이 후속 추진 중에 있고 동 과제에서는 과제 종료 후 수소 생산 설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
- 정부는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인증제,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(CHPS) 등을 도입하여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예정임

※ 문의: 수소산업과 배준형 과장 (044-203-3970) / 유재영 사무관 (3972)